

울림과 잠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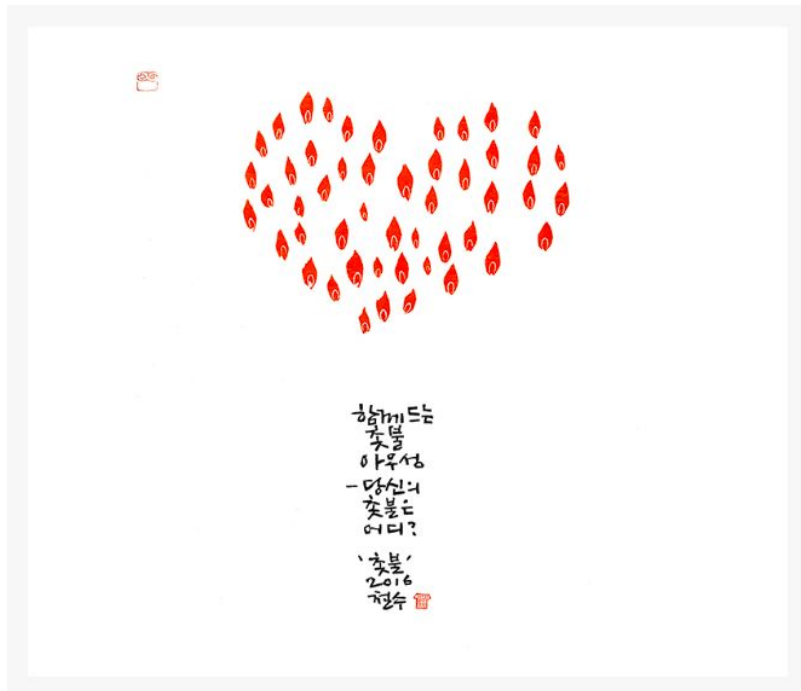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

연중 제 29주일 (2026년 10월 18일) 전교주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촛불’ 이철수(1954~) 2016년 목판, 한지 50X42cm / 출처: 이철수의 집(mokpan.com)

1981년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980년대 민중 미술을 대표하는 판화가로서 사회변혁운동에 힘쓰다가 1988년 무렵 자기 성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판화 영역을 확대하면서, 평범한 삶과 일상사를 관조하는 자기 수행의 과정으로 판화를 새기고 있다. 40년이 넘는 지속적인 작업으로 그는 수천점이 넘는 목판화와 벽화와 엽서 그림을 아우른 방대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판화를 “내 일상의 고백이자 반성문”이라고 표현한다. 현재 충북 제천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평화와 환경 의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셀라 성가집 112번 “나의 안에 쉬어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112

나의 안에 쉬어라

이사 43 ; 요한 15,4

류수영

나의 안에 쉬어라 - 나는 네 하느님이니 - 모든
환난 가운데 - 너를 지켜주리라 - 두려워하지말라 - 내가 널
도와주리라 - 놀라지말라 - 네 손잡아주리라 - 내가 너를
지명하 - 여불렀으 - 니 너는 내 것이라 - 내 것이라 - 너의
하느님이라 - 내가 너를 보배롭 - 고 소중하 - 게 여기노라 - 너를
사랑하 - 는 네 주님이라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회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회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9-1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9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11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12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13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4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5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18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마태오 15,21-28 나눔 묵상

■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22절)

- 종교를 사회적 평화를 위한 도구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내면을 성찰하며 개인적인 신앙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RC2)
- 간절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여인의 모습에 비해 제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TR3)

■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25절)

- 산란한 마음을 참회와 회개로 다스리고, 타인이 아닌 하느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RC2)
- 일상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며, 제 뜻을 고집하기보다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RC2)
-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의 간절한 사정을 아뢰며 도움을 청하는 여인의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힘들 때 저도 주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기도로 도움을 청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새기게 된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TR3)
-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한 제게는 주님께 온전히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했던 여인의 믿음이 부럽고, 저도 언젠가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TR3)

■ "주님, 그렇습니다" (27절)

- 지난 신부님 강론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주님의 뜻과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의탁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TR3)

■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27절)

- 응답이 없을 때 쉽게 포기하던 제 모습을 반성하며, 끈질기게 매달리는 믿음과 간절함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RC2)
- 많이 가지려 애쓰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총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TR3)

■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28절)

- 그동안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거래적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바라는 것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RC2)
- 하느님을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었고,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과 제 공로가 아닌 은총으로 이끌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RC2)
- 주님께서 언젠가 제게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저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진정한 믿음을 키워가고 싶어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TR3)

■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28절)

- 자신을 낮추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청하는 여인의 지혜로움과 간절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면 언젠가 제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TR3)
-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저를 보게 되었고, 머리로 아는 믿음보다 마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TR3)

■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28절)

- 모멸감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청했던 여인의 모습과 믿음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TR3)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셀라 성가집 159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절을 부르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59

이민섭

D A/C# Bm Bm7/A G D/F#
 당신 은 사랑 받 기 위 - 해 태 어 난 사람 - 당신 의 삶 속 에서 - 그 사람

4 1. Em A sus4 A7 2. Em A D G/A
 받 고 있 지 요 - 당신 받 고 있 지 요 -

7 D A/C# Bm Bm7/A G D/F#
 태 초 부 터 - 시 작 된 하 느 님 - 의 사 랑 은 우리 의 만 남 을 통 - 해

10 Em A D A/C# Bm Bm7/A
 열 매 를 맺 고 - 당 신 이 이 세 상 - 예 존 재 함 으 로 인 - 해 우리

13 G D/F# Em A7 D G/A A7
 에 게 얼 마 나 - 큰 기쁨 이 되 는 지 -

16 D A/C# Bm Bm7/A
 당 신 은 사 랑 받 - 기 위 해 태 어 난 사람 -

18 G D/F# 1. Em A sus4 A7 2. Em A7 D
 지 금 도 그 사 랑 - 받 고 있 지 요 - 받 고 있 지 요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완덕오계 (完德五誠)

지난 9월 11일, 우리 본당 출신의 문희진 콜렛 수녀님께서 본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수녀님께서 그간 수녀원에서 보고 배우고 묵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창설자이신 방유룡 신부님의 완덕오계라는 가르침을 전하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메시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신앙을 머리로 안다는 것과 몸에 베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야 조금씩 몸에 베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안다는 것과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삶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는 것도, 내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도, 따뜻하게 말하는 것도,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응답하는 것도 모두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완덕오계는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훈련하며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완덕으로 나아가는 다섯 가지 영적인 길이자 디딤돌입니다:

1. 분심잡념을 물리치고
2. 사욕을 억제하고
3. 용모에 명랑과 평화와 미소를 띠고 언사에 불만과 감정을 발하지 말고 태도에 단정하고 예모답고 자연스럽게 하고
4. 양심불을 밝히고
5. 자유를 천주께 바치고 그 성의를 따를 지니라.

첫 번째 디딤돌, 분심잡념을 물리치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 6,33)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하라고 하시기 전에, 삶에서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은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많은 분심이 떠오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은 이미 분주합니다. 기도를 해서 분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걱정과 빼앗긴 마음들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방유룡 신부님께서서는 분심잡념을 ‘생기지 않게 하라’가 아닌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분심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두어선 안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보다 커져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다시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건 파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흔들리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하느님께로 잡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첫 자리는 누구의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디딤돌: 사욕을 억제하고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욕심과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조종하기 시작할 때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자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적인 욕구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도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어느 것에도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 하고 싶은 것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로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화를 다 쏟아낼 필요는 없으며, 내가 옳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나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사욕을 억제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내가 옳아야 한다는 마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내가 옳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 고집을 한 번 양보해 보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들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참된 자유를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욕구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구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디딤돌, 용모에 명량과 평화와 미소를 띠고 연사에 불만과 감정을 발하지 말고 태도에 단정하고 예모답고 자연스럽게 하고:

세 번째 디딤돌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 얼굴에도, 말에도, 태도에도 드러나야 합니다. 화나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감정이 내 말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질문해 봅시다. 내가 힘들지만 가족에게 웃어주는 것, 피곤해도 먼저 인사하는 것, 내 마음도 어렵지만 상대방에게 따뜻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변화시켜 줍니다. 불평 한마디를 줄이고 감사 한마디를 더하는 것, 아무 말없이 기다려 주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태도 역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혹은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삶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굴도 굳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면 조금씩 힘이 빠집니다. 나를 과장할 필요도, 감출 필요도,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꾸미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연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나, 가정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성당에서의 내가 조금씩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속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얼굴, 말, 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나 질문해봅시다.

‘얼굴에는 평화, 말에는 사랑, 태도에는 온유함’을 기억하며,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신앙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디딤돌, 양심불을 밝히고:

수많은 생각과 감정속에서 무엇이 정말 옳은지, 무엇이 정말 하느님의 뜻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비추어주는 양심이라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우리는 하느님안에서 계속 밝혀야 합니다. 등불이 어둠속의 나를 대신해서 걸어주지는 않지만,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비추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소리가 참 많습니다. 내 자존심 소리, 내 욕심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소리. 그런 소리가 너무 커지면 내 안의 조용한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양심의 등불을 계속 밝힐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세번 배반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루카 22,61)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말씀 없이 그냥 바라보셨지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안에서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눈길이 베드로의 양심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그 눈길은 질책하는 눈길도, 절망시키는 눈길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눈길이었습니다.

양심성찰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런 예수님의 자비의 눈길안에서 오늘의 나를 진실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나의 삶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그사랑안에서 내 하루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 하며 나는 오늘 무엇이 감사했는지, 어디에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섯 번째 디딤돌, 자유를 천주께 바치고 그 성의를 따를지니라.:

하느님께 자유를 바친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유를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이 자유로 주님을 선택하겠다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원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이 열릴때도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주님 왜입니까?”하고 묻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왜’라는 질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다 알아야 걸을 수 있는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은 충실히 하면서 내가 알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건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아주 작은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을 알아들었을 때, 먼저 다가가라고 양심이 말할 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라고 말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손을 놓지 말자고 양심이 말할 때도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런 작은 “예”들이 하나씩 모여 우리 삶 전체가 하느님께 드러지는 봉헌이 됩니다. 자유를 하느님께 바친다는 것은 자유를 잃는게 아니고 가장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하고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마지막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느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걸음이면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 마음을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감정이 나를 끌고 가려할 때 한번 멈추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잠들기 전에 잠시 하루를 주님앞에서 돌아보는 것,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들었을 때 나의 작은 “예”를 드리는 것. 이 한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바로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찾는 삶입니다.